

安東權氏大宗院新年交禮會

안동권씨대종원

신년교례회



△ 대종원은 1월 16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내빈,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가졌다.

대종원(총재 권정달)은 지난 1월16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번지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내빈, 총재단, 종무위원, 지역종친회장,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사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사회는 오전에 눈이 조금 와 지방에서 연차하여 11시20분부터 시작되었다. 권영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께 명배, 열선조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상음례에 이어 내빈소개는 권이혁 전 장관, 권영태 우리민족교류협의회 총재(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권성동의원, 권택기특임차관,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과 특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권오성대장을 소개하고 총재단, 파종회장, 종보편집자문위원을 일일이 소개한 후, 시간관계상 종무위원, 종친회장, 대의원은 단체로 인사를 하였다.

권정달 총재는 인사에서 멀리 전국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권이혁 명예총재님께서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권영태장관, 오을 전의원, 오성대장, 파종회장, 안동에서 버스로 오신 종친께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전국 및 해외 100만 권문가족께 새해 다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지난 임진년은 우리나라가 무역 성장과 경제성장이 세계 선진국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연세 많은 분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굳건히 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음에도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노, 장년층의 염원이 잘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하였다.

문중은 거년에 남중공 단소를 이단하여 시, 아조 춘추항사를 안동에서 모시므로 참배객이 크게 증가하여 승조사상이 고 양되고 있으며 광주에서 전국 청장년체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해주산성 종정사에서 임진년 7주갑 권율도원수 사제사 등 큰 행사를 잘 마무리하였다고 하였다.

계사년에는 후학계도를 위해 지역종친회별, 파종회별로 보학교육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람에 중앙에서는 뿌리찾기 운동본부를 대종원에 설치하여 족보를 찾아주고 있는데 각 파별로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해 주기 바람에 급년은 영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청장년체전에 많이 참가하여 권문의 단합된 저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권이혁 장관(본원 명예총재)은 격려사

35세)은 안동권씨 신년회에 와서 여러 족친을 뵈오니 감회가 깊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을 하느라 족장 어른들께 자주 뵈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권문의 후손으로서 혈통의식을 가지고 가문의 본보기가 되도록 군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권오을 전의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로 가름하였다. 이어 공지사항으로 권영태 영주종친회장은 급년도 제 25회 전국 청장년체전에 영주청장년회 주관으로 4월 28일로 영주에서 개최기로 결정되었으며 오사가 종친회와 북경종친회도 참가하기로 하였으니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종친회, 파종회 및 산하 단체, 청년회 친목회, 부녀회 등 권문의 많은 족친이 참가하여 화합을 다지자고 하면서 앞으로 체전은 청장년만이 아닌 권문이 모두 참여하는 큰 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사무총장은 행사를 위해 권영선, 권순선 부총재의 협찬에 감사하였으며 권정달 총재님이 내빈께 기념품을 증정한다



△ 좌상:총재와 회장단 인사모습, 우상:권오을 전의원과 권택기 특임차관 인사, 좌하:안동지역 임원단, 우하:폐회예 앞서 전문의 노래 합창

에서 권문의 중흥을 위해 주야로 크게 힘쓰고 있는 권정달총재, 권영석사무총장에게 박수를 부탁하고 이제 나이 9순으로 인생에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으며 신년 화두로 안동권씨는 두가지 북이 오르면 첫째 운택한 마음가짐으로 풍부한 삶을 살자, 여유자자(餘裕濟濟)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표정도 운택해지며 부드러워진다. 둘째 유머스런 사람이 되자 인간의 특성은 유머스런 점이 있는데 유인원인 원숭이는 유머가 없으니 인간의 특성을 잘 살려 모두가 나이를 초월하여 희망과 행복을 누리자고 하였다.

권영태 장관은 새해 벽두에 족친을 만나 반갑다고 인사하며 요즘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고 지역갈등이 세대갈등보다 심하다고 하면서 상호 소통하면서 통치해야 하는데 권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였다.

권오성 대장(추밀공파

고 발표하고 끝으로 권문의 노래를 다함께 합창하며 오찬을 뷔페로 하며 정담을 나누고 오후 1시반경 폐회하였다.

신년회에 협찬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권영선부총재 100만원, 권순선부총재 100만원, 권홍사부총재 100만원, 권송성부총재 30만원 권오을 전의원 20만원, 권우근고문, 권병홍고문, 권무탁부총재, 권정섭부총재, 권혁용부총재, 권오춘부총재, 권용일부총재, 권영탁(중운공파회장), 권태경(밀양종친회장), 정간공종회, 창화공종회, 석주공종중, 권승구(미포종친회장), 경주종친회, 경주청장년회, 안양종친회, 서울산악회, 권영수(제천종친회장), 권병국(상주종친회장), 이상 각 10만원 권창(5만원), 권혁중(3만원) (합계 548만원)

회관: 권성동의원, 권택기 특임차관, 권해국 헌정회사무총장, 권혁승 추밀공파대종회장, 권홍사 반도건설회장, 권준식정한공회회장, 권영범 권율도원수종회장
<글 권오복 편집위원 사진 권경일 권범준 기자>



△ 시조태사공께 명배를 드리고 있다.



△ 내빈, 총재단, 대의원 상호인사(상음례)를 하고 있다.



△ 주빈석(좌:권영태(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권성동의원, 우:권이혁 장관, 권오성 한미연합사부사령관)

樞密公派大宗會 제24차 定期總會

추밀공파대종회

정기총회

추밀공파대종회(회장 권혁승)는 지난 12월21일11시 한국자유총연맹 연희장에서 전국 추밀공파대의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진행은 영빈 사무국장의 성원보고에 이어 핵승 회장은 성원되었음으로 회의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국민의례, 시조태사공께 명배 후 참석 대의원을 모두 소개하였다. 핵승 회장 인사로 전국 각지에서 추운 날씨에도 원지에서 참석한 대의원에 감사의 표고와 아울러 급년도 지역별 간담회행사를 새해에는 더욱 활성화하여 송조이념을 받들고자 다짐하였다. 더불어 “임진년 한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새해 회원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해엔 하시는 사업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라고 인사하였다. 이어 권오복 감사의 감사보고와 영빈



△12월 21일 자유총연맹 회의실에서 추밀공파 대종회 총회 중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는 핵승회장(왼)

국장의 결산보고를 승인하였다. 회장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기타 토의 후 오찬에

들어가 연말을 앞둔 송년회 분위기 속에서 화기에애한 가운데 정담을 나누며 총회를 산화하였다. <권범준 본원기자>

계사년 안동종친회 신년인사회



△안동종친회는 시민회관에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안동종친회(회장 권재주)의 2013년도 안동권씨 신년 인사회가 12월 오전 11시 안동시청내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안동권씨 대종원 권정달 총재 내외분을 비롯해서 권영세 안동시장 내외, 김명호, 등 도의원 2명, 권기익, 권광택, 권기탁 시의원, 죽천(族親)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회에서 시조묘소망배(始祖墓所望拜), 상견례(相見禮)후 천계순씨(안동시 서후면 자포리)에게 효행상을, 권재웅씨(안동시 태화동)에게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

권재주 종친회장은 신년 인사말을 통해 “족친 여러분은 우리 안동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그동안 조상들의 빛나는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이어서 “안동종친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만여 족친이 살고 있는 안동시에 24개 읍. 면. 동까지 지회가 결성되어 있다”고 자랑한 후 “우리는 무엇든 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

다”며 족친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권정달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2만4천불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한테 베풀어서 다 같이 잘 살면서 발전해 나아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권 총재는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좋은 길로 가도록 계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올해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가 영주에서 개최됨으로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랐은 권영세 안동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963년 안동이 시(市)로 승격된지 올해로 꼭 50년이 되는 해”이라고 밝히고 경북도청도 내년에 안동으로 옮겨지면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현재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무엇보다도 올해는 중요한 한해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축사가 끝난 후 경품추첨을 했는데 100여명이 각종 상품을 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족친들은 시내 각 식당에 분산되어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재주 회장>

大姓氏門中協議會送年會

대성씨문중협의회회송년회



△대성씨문중협의회 공동대표들이 모여 송년축배를 들고 있다.

12월28일 이태원 호남정에서 한국 대성씨문중협의회(상임공동대표 이태섭)는 송년회를 안동권씨측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모임은 가락김씨, 전주이씨, 경주김씨, 경주최씨, 진주강씨, 광산김씨, 파평윤씨, 청주한씨, 안동권씨, 인동장씨, 김녕김씨, 순흥안씨, 안동김씨의 대종회장, 신라김씨연합대종원총재 및 사무총장과 내빈으로 김장실의원이 참석하여 축배를 들었다.

지난해 대성문중협의회 결성으로 정례모임을 통하여 문중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연장자인 김문석회장이 건배를 제의하면서 대성문중은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며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후보를 적극 지지 성원하였는데 앞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하였다.

18인이 참석하여 정담을 나누었으며, 앞으로 20대성까지 회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계사년 신년회는 파평윤씨 윤철병회장이

주관하기로 하여 1월 15일 화기에애한 가운데 오찬을 가졌다. 대성씨문중협의회는 현재 16성씨문중이 가입하고 있으며 20대성이 모두 결성되면 인구가 2,200만명이다. <협의회사무총장 권경석>

안동권씨대종원 메일교체 안내

안동권씨대종원 E-MAIL이
야후메일 서비스 종료로
아래와 같이 신규 개설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전송바랍니다.

ankwon2695@naver.com
ankwon2695@nate.com

安東權氏宗報

宗是: 崇祖理念確立·愛族思想鼓舞
後學啓導寄與·社會倫理培養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영철 인쇄인 권영태

발행주소: 안동권씨대종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5-3(2층)
우: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418-1(3층)
우: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테시모 연락처: (054) 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編輯委員	권계동, 권오복, 권혁세
記者	권범준, 권혁세, 권경일, 권오인
자문위원	권정달 권영한 권태하 권영선 권오창

예금주 및 계좌번호(안동권씨 대종원) 권경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중앙종친회) 농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종보사 010108-01-000369